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창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금강경(9월 16일)

고정관념 깨뜨려 실체 분명히 보라

오늘 이 법회는 참으로 뜻이 깊습니다. 봉선사가 어떤 절입니까. 조선 세조 사망 후 부인 정희왕후가 광릉(光陵) 즉 세조를 추모하기 위해 사찰을 89칸으로 중창하고 봉선사라고 했습니다. 전국 교종을 총괄하던 곳으로 교종 본찰입니다. 대대로 교종의 맥을 이어왔지요. 운허 큰스님으로부터 강백을 전해 받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대강백 월은 스님이 주석하시는 곳입니다. 이번 법회는 참선으로만 견성성불 오히려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속에도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해 펼쳐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교종은 이 법회에 긍지를 가져야 하고, 위축되지 말아야 하며, 경전에 의지해서 깨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고, 깨칠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수행하는 것은 상구보리요, 중생을 교화는 화화중생인데, 화화중생에 목적을 두면 경전이 얼마나 중요인지 말로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양나라 혜고 스님이 <고승전>을 편찬할 때 10가지 분류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첫째에 속하는 것이 역경승입니다. 두 번째가 경전 주석하는 스님, 세 번째가 참선하는 스님, 네 번째가 명불이라 해서 율을 잘 지키는 스님 순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역경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서기 67년 후한 명제 때 가섭 스님 등이 모시고온 게 이 42장경이었습니다. 스님은 경전과, 석가모니불상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나 삼보가 함께 전래된 거죠. 그러나 경이 아무리 나왔자 경은 스스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도 그것을 소개·설명하는 이가 없으면 그 위대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보배가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없으면 보배를 볼 수가 없

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경전이 중요하고 번역과 가르침 역시 중요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주석이 필요하죠. 이것이 교종 종지의 근본입니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입니다. 수천종의 경전이 있습니다만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어서는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근본이고 팔만장경 가운데 핵심이 됩니다. 물론 <화엄경> <법화경> 등도 있지만 현재 부처님 경전 가운데 법안이 오롯

“
모양은 보아도
성품을 못보니
둘 다 없는것
”

하게 남아 있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소의(所依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화엄종은 <화엄경>이, 법화종은 <법화경>이, 정토종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3부가 소의경전입니다.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말을 떠난'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말을 초월한 경지에서 말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의하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면 볼수록 차별이 생겨서 오묘한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실체를 보려면 모든 겹집을 벗겨야 합니다. <금강경>은 파상(破相, 모든 상을 깨



9월 16일 봉선사 설법전에서 열린 강설대법회 첫 법사인 지관 스님은 "경전을 그냥 읽어서는 안되고 그 뜻을 체득해 깨달음을 추구함과 동시에 포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린다이라 했어요. 알맹이를 보려면 껍데기를 다 버리고 부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성종과 상종을 말합니다. 상종은 유상적인 현상계, 모든 삼라만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은 그 상 속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고 둥근 모양은 돌의 상이고 굳은 것은 돌의 성입니다. 불을 보고 덩다 뜨겁다 하는데 빨간 것은 상이고 뜨거움은 성이요. 빨간 모양은 볼 수 있어도 불의 뜨거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은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지수화풍' '사대'의 모양은

보지만 성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선종의 종지는 바로 자기의 성을 보기 위해 참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성이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몸을 움직이고 모든 작용하는 주체는 몸통이 아니에요. 몸통이는 지수화풍 물질, 고기명이지 우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을 말하는 종파입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실체를 파내야겠다, 실체를 체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참선을 합니다. 불립

문자를 의지하는데 문자는 전부 경전이요, 논이요, 글이란 말입니다.

글 속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불' '불' 하고 아무리 불러봤자, 입속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불명이 입 속에 남아 뜨거워지 온통 혼이 나지. 말로 불이라고 천만번 불러봤자 입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상은 전부 가상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선은 왜 합니까. 실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선종입니다. 사실 선종인 조계종은 그 안에 참선수행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종 율종 진언종 등이 모두 하나로 통합된 종파라고 볼 수 있어요.

조계종에서 의지하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불립문자인데 경이 왜 필요할까요? 불립문자라 하면 경이 필요 없어요. 참선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 화엄부, 법화부, 열반부, 반야부 등이 있어요. 반야부가 <금강경>이 속해 있는 부입니다. 반야부 경전만 600권이 되는데, 그 속에 인왕반야, 호국반야, 마하반야, 금강반야부 등 8부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반야부의 600권 중 제 577권에 해당하는 한 권이에요. 글자는 5

“
경전공부하다
깨친 스님 많아
철저히 정진하길
”

천7백자쯤 되는 가장 작은 경전입니다.

<금강경>은 중국에 전해지면서 여섯 번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역은 402년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두 번째는 535년 보리유지삼장, 세 번째는 566년 진제삼장, 네 번째는 590년 금다삼장, 다섯 번째는 648년 현장 법사, 마지막은 695년 의정 스님이 번역했습니다. 삼장은 경을 두루 잘 아는 법사예요. 이 가운데 한국 통용본은 첫째 구마라집 번역본입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온 것이 527년인데 <금강경>이 초역되고 150년 후에 건너왔어요. 달마가 선종을 세우기 전 500여년 동안 중국에 전파된 불교 사상은 전부 교종에 속해있습니다.

달마 스님이 와서 제창한 것이 '불립문자

견성성불'입니다. 선종은 수행의 한 종파인데 경책하고 때려잡고, 아주 오묘하게 물고 가는데는 선종이 최고예요. 달마 스님은 '마음의 정체는 선리(禪理)'라고 말했습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왔을 때 500년 간 뿌리 내린 교종 교리 때문에 달마가 말하는 사상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림굴에 가서 9년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혜가 스님을 만나 이심전심 뜻으로 통해서 초조 달마, 이조 혜가가 된 겁니다. 법은 전할게 없이 오고 가는 눈빛으로도 서로 알아요. 고개 끄덕이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 건 말이 필요 없어요.

법을 전하는데 무식한 사람은 전했는지 안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가 없거든. 그래서 <능가경>을 증표로 했어요. <능가경>에 네 가지 번역이 있는데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4권을 준 겁니다. 여기에 의지해 중생을 제도하라 한거죠. 그래서 <능가경>이 초기 선종의 소의경전이 됐어요.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오로 이어왔습니다. 홍인 대사 때 <금강경>으로 소의경전을 바꿨습니다.

<능가경>은 상(相)·명(名)·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 등의 오법을 주축으로 설명했어요. 상은 명상이기 때문에 반야계하고는 반대고, 명은 이름인데, 이름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의 본래 면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별은 뭐니까. 전6식, 제7말나식 제8아뢰야식까지 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분별이에요. 제9색경식에 올라가야 무구진여입니다. 제8식도 진망(眞妄)이 화합한 잡동사니예요.

우리의 마음인 중생심에는 깨끗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어요. 수행은 까만 마음을 없애고 흰 마음만 완전히 찾아내고 완성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은 까만 마음이고 경제제 삼학 육바라밀 등은 투명하여 하얀 마음이에요. 홍인 대사는 <금강경>이 격의(格義)불교가 유행하던 당시 일반 인식과 통하는 게 있고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묘한 것을 알 아본 겁니다.

아집 법집을 깨뜨리고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을 나타내는 것이 <금강경>의 목적이에요. 아집 법집을 없애고 고정 관념을 깨뜨려야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집 법집을 여의고 삼공을, 내 자신 주관도 공해지고, 객관도 공해지고 나중에는 공했다. 관념까지 공해진다. 삼공을 여의어야 하는 겁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것, 유도 무도 아니면서 곧 유와 무라고 하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유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가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도 3호-그림: 30x40cm
달마도 4호-그림: 40x50cm
달마도 5호-그림: 50x60cm
달마도 6호-그림: 60x70cm
달마도 7호-그림: 70x80cm
달마도 8호-그림: 80x90cm
달마도 9호-그림: 90x100cm
달마도 10호-그림: 100x110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가 달마 SHOP 051) 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월간 『불교와 문화』 9월호 발간!



2006년 09월호

원간 불교와 문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만나다

9월호에서는 연속기획 3차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사(生)의 두 번째 주제인 '노년'을 주제로 다룬다. (연재 9월호) 코너에서는 불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6 청정요를 '월간 바깥바라'를 통해 소개한다. 한국민족의 전통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전통 문화를 찾아 불교에서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계몽기에 관한 가운데 문화 해설을 가리는 '제가 올랐던 길'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생사(生老病死)를 생사(生)의 두 번째 주제인 '노년'을 주제로 다룬다. 또한 불교계 유망의 서양음악 오케스트라인 뉴욕-나팔리오오케스트라가 도입 된다는 소식, '월간 불교와 문화'의 9월호는 '제가 올랐던 길'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생사(生老病死)를 생사(生)의 두 번째 주제인 '노년'을 주제로 다룬다. 또한 불교계 유망의 서양음악 오케스트라인 뉴욕-나팔리오오케스트라가 도입 된다는 소식, '월간 불교와 문화'의 9월호는 '제가 올랐던 길'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생사(生老病死)를 생사(生)의 두 번째 주제인 '노년'을 주제로 다룬다.